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작은영화관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영국 농촌영화관 지원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The Study of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mall Scale Cinema as the Local Cultural Space: The Case of Rural Cinema Pilot Scheme in the U.K.

정 지 은(Jung, Jieun)** · 정 인 선(Chung, Insun)***

본 연구는 작은영화관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내에서의 지역 영화관 현황을 살펴보고, 작은영화관 계획이 설립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영국에서 있었던 농촌 영화관 시범 정책을 사례 조사로 삼아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작은영화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에서의 작은영화관은 극장 부재 지역에 영상문화의 향유권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하는 상설 영화 시설이라는 점과 농촌 영화관 지원 사업이 지역에 지속적 영화 상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영 주체와 공간을 발굴했다는 국내와의 차이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둘째, 영화의 소비가 어디서든 가능해진 오늘날, 작은영화관은 공간에서 단순히 영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형태로 발전해 가야한다. 셋째, 지역 영상문화 생태계 조성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활동가 및 주민들의 영상 창작 여건을 마련하고, 작은영화관이 지역 내 창작된 영상 콘텐츠를 유통 및 배급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는 영화'에서 나아가 '참여하는 영화'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을 문화·교육적 용도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거나, 작은영화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작은영화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상품 분야 등의 학술 연구와 현장에서 모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작은영화관, 농촌 영화관 시범 계획, 동네 극장 펀드, 지역영화관, 지역 문화공간, 커뮤니티 시네마

This study is investigated for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cinema and the detail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mall scale cinema plan in S. Korea, in order to discuss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small scale cinema. Also, we suggest the future of the small scale cinema as local cultural space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rural cinema pilot scheme in the U.K. The major objective including the summary is following: First, there are diverse implications for the difference that the small scale cinemas at the absence area are developed by the U.K.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for enhancing the local culture and the rural cinema funding help to find the movie contents and space for continuous screening in local community. Also, since the cinema can be watched everywhere, the small scale cinema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contribution of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in local communities, not just about enjoying contents in the space. For the ecosystem of video culture in local community, the local cinema should perform to distribute new local video contents, and make the environment to create new video contents by local activists or residents. Finally, the local cinema should be shared the space to cultural and educational purpose with local community and developed the sustainable education program for creating or reading movies, in order to expend from 'watching movie' to 'participating movie'.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basic data in cultural academic and industry field such as cultural art, cultural industry, and product business, through suggestion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small scale cinema as local cultural space.

Key words: small scale cinema, rural cinema pilot schemes, neighbourhood cinema fund, local cinema, local cultural space, community cinema

* 이 논문은 충남연구원 2017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이 논문은 2017년도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의 국내외 영상문화 사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Senior Researcher, Dept. of Regional & Urban Research, ChungNam Institute, E-mail: jejung@cni.re.kr), 제1저자

***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한영상제작센터 객원연구원(Researcher, Korean Film Council, E-mail: ohblur@naver.com), 교신저자

I. 서론

영화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상품으로 해외에 수출되면서, 경제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영화는 다양한 예술 장르가 혼합된 형태로, 그 시대를 반영하여 한 국가의 문화·사회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윤소민, 정지은 2017). 2014년 한국 영화시장은 해적, 명랑, 국제시장 등 한국 작품들이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2013년에 이어 2014년도 연간 약 2억 명의 관람객을 돌파하였고, 국민 1인당 연간 영화관람 편수는 약 4.2편으로, 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한국 영화시장의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영화 관람의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거주 인구가 부족한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 내 영화관이 없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인근의 대도시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김진태 2015). 2000년대 이후 중소 도시의 단관 극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영화관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작은영화관 사업이 시작되었고, 극장 부재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총 100석 내외, 2개관 정도의 작은 규모 상설 상영관을 조성하였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에서 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약 890만 거주)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 수익성에 따라 영화관을 건립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문화시설이다(채지영 등 2016).

작은영화관의 시작은 2010년 조성된 전라북도 장수군 한누리시네마의 개관으로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가 주도하여 장수군 내의 한누리 전당 갤러리를 개조하여 영화관을 만들면서, 농어촌의 작은영화관 사업이 시작되었다. 전라북도의 7개 작은영화관에 24만 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 운영한 강원도 홍천시네마는 매월 평균 6,500명의 관객이 영화관을 찾았다. 작은 규모의 영화관이지만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주 인구가 부족한 시군 지역 주민들이 영화 관람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함주리, 원환섭 2015).

하지만 작은영화관의 건립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학계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작은영화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이충기, 채지영, 안소현 2018), 국내의 단편적 작은영화관 사례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어, 해외의 영화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은영화관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작은영화관이 지역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은영화관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내에서의 지역 영화관 현황을 파악하고, 작은영화관 계획이 설립된 경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영국에서 있었던 농촌영화관 정책을 사례 조사로 삼아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작은영화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영화 산업의 변화와 지역 영화관

1. 지역영화관의 과거와 현재

지역 극장에 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지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단관극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멀티플렉스 대 단관극장의 대비를 부각시키는 것이며, 멀티플렉스라는 산업 구조 속에서의 전통적 단관 극장의 쇠퇴와 소멸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는 영화관이라는 공간의 변천과 위치라는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둘째, 독립극장 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문제에 주목한다면 영화 산업의 독과점, 프로그램 다양성 등의 주제가 부각된다. 셋째, 지역극장 대 멀티플렉스라는 대립 구조가 있다. 그러나 사실 지역에 있는 멀티플렉스 역시 지역극장이라는 점에서 엄밀히 이 대비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 극장이라 부를 때 일반적으로 지역 독립 극장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립 지형은 지역의 독립 극장 대 멀티플렉스 체인을 의미하게 된다. 즉, 이 주제는 서울에서의 독립 극장 대 멀티플렉스와는 다른 지형의 논의가 펼쳐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이슈는 지역에서의 문화향유라고 하는 문화정책적 이슈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멀티플렉스라는 극장 형태가 지역 극장의 소멸을 가져왔다고 여기지만, 지역 극장의 위기는 1990년대 이후로 꾸준히 있어왔다. 첫 번째 위기는 1994년 프린트 벌수 제한 폐지로 인해 동시개봉 배급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제상영관의 위치에 있던 소극장들이 개봉관으로 전환하거나 개봉관으로 바꿀 자본의 여력이 없는 극장들이 다수 폐업을 하게 되었다. 1990년 544개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소극장은 1995년에는 333개로 줄어든다(이충기 등 2001).

그 후 1998년 최초의 멀티플렉스 도입은 지역 극장의 두 번째 위기라 할 수 있다. 멀티플렉스는 거대 개발을 위해 원도심이 아닌 신도심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로 인해 구도심의 극장을 포함한 상권 및 주요 시설들은 사라지거나 상징적 의미를 잃은 채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강은기 2016). 이 과정에서 주로 구도심에 자리를 잡은 전통적 극장들은 폐관의 길을 걷게 되고, 멀티플렉스가 표준화된 극장 형태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세 번째 위기는 디지털 시네마의 도입이다. 국내 디지털 영사시스템의 보급은 200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CGV, 롯데, 메가박스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졌다. 디지털 시네마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영화를 상영하게 되기 때문에 독립영화, 얼터너티브 필름의 제작과 상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애초에 여겨졌지만 설비투자에 대량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특성상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시장을 통제하게 되었다(Aveyar 2009).

2003년부터 시작된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관 지원 정책으로 인해 대도시 중심의 지역 개봉관들(광주극장, 부산 국도극장, 대구 동성아트홀 등)은 예술영화관으로 전환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나, 예술영화의 관객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도시의 개봉관들은 2005~2006년 무렵이 되면 폐관하거나 디지털 시네마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1) (한미경제협회의의 의제 중 하나였던 수입 영화의 프린트 복사 제한은 1994년에 완전 폐지하게 된다. 최대 10벌로 제한되어 있었던 프린트 복제수는 한미 협의에 따라, 1989년에는 12벌까지, 90년 이후부터는 매년 1벌씩 증가를 허용해 1994년에는 완전 폐지하도록 결정하였다(영화진흥위원회 1989).

<표 1> 전국 극장 중 멀티플렉스의 비중 변화 (2005년, 2011년, 2017년 비교)

구분	2005년		2011년		2017년	
	멀티플렉스 극장수	전체극장 대비	멀티플렉스 극장수	전체극장 대비	멀티플렉스 극장수	전체극장 대비
서울	32	55.2%	51	77.3%	68	79.1%
부산	12	66.7%	21	87.5%	27	90.0%
대구	7	77.8%	14	87.5%	19	82.6%
인천	8	61.5%	11	78.6%	20	80.0%
광주	6	60.0%	8	72.7%	13	86.7%
대전	5	55.6%	7	70.0%	9	90.0%
울산	3	60.0%	3	75.0%	4	66.7%
경기	42	61.8%	57	90.5%	92	92.0%
강원	2	11.8%	8	100.0%	11	57.9%
충북	4	57.1%	6	75.0%	12	92.3%
충남	4	23.5%	7	53.8%	11	52.4%
전북	7	46.7%	9	75.0%	11	45.8%
전남	5	38.5%	7	100.0%	13	72.2%
경북	7	38.9%	11	78.6%	20	76.9%
경남	10	52.6%	15	88.2%	24	82.8%
제주	4	80.0%	5	100.0%	5	100.0%
계	158	52.5%	240	81.9%	359	78.0%

2005년 극장 및 스크린 현황 분석(영화진흥위원회) 및 2011년, 2017년 전국극장현황(영화진흥위원회)²⁾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에만 해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지의 멀티플렉스 비중은 30% 내외였다. 광역 도시가 없는 강원 지역의 경우 11%에 불과했다. 그만큼 2005년까지는 광역 도시를 제외한 중소 도시에서 지역극장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 멀티플렉스는 1998년 도입 이후 10여년 만에 영화 관객 수를 연간 1억 5천만 명(2007년) 수준으로 올려놓으며 약 10배의 관객 신장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새로운 관객 유입으로 인해 분면 지역의 기존 극장들도 수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 극장의 폐관 혹은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으로의 편입 등이 본격화된 것은 디지털 시네마가 보급되던 2005년대 이후이다³⁾.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이 되면 도 단위 지역의 멀티플렉스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 강원도의 경우 11%에 불과하던 멀티플렉스 비율이 6년 만에 100%가 되며, 전남 역시 38.5%에서 100%로 올라가게 된다. 전남의 경우, 2005년도에 13개의 극장이 있었고 그 중 5개가 멀티플렉스였는데 2011년에 되면 단 7개의 멀티플렉스 극장만이 남게 된다. 극장 수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강원도 또한 2005년에 17개 극장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2011년이 되면 멀티플렉스 8개만이 지역에 남아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일명 영화관 공백 지역이 많아지게 되었다.

2012년에는 9개 도 156개 시·군 중 영화관이 부재한 시군이 91개에 이르게 되고, 전남의 경우 기초단체 중 극장이 없는 비율이 86%에 달하게 되었다(윤혜숙, 함주리 2012).

2. 작은영화관 계획의 설립

지역 극장의 쇠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지역 극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영세 극장의 경제적 자립과 운영활성화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멀티플렉스로 인해 극장이 전혀 없는 지역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영화 관람의 양극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문화 관람 기회가 거의 없는 이들 지역에서 영화 관람은 가장 대중화된 문화행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도시에서 영화는 산업이라기 보다는 문화의 의미가 더욱 강하고, 영화관은 상업적 오락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이 회합하는 문화공간의 의미가 더욱 컸다. 멀티플렉스 이후의 극장 감소는 극장 수의 절대적 감소가 아닌, 지역별 편차를 둔 상대적 감소였고, 문화향유의 극심한 양극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면서 작은영화관 사업을 본격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영화관을 지역 영화 향유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영화관으로 정의하고, 공연법 상의 공공 공연장 개념을 빌려와 ‘공공상영관’으로 분류하고 있다(함주리, 김정표, 정민화 2016).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 전북, 전남 등은 2017년이 되면 멀티플렉스 극장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렉스의 비중이 2011년에 비해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작은영화관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작은영화관은 지역 간 영화 향유권 격차의 해소, 문화 향유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민이 대도시와 동일한 시기에 멀티플렉스에 뒤지지 않는 시설에서 개봉 영화를 관람할 기회 제공, 지역 영상문화 증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지역 영화관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은영화관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III. 영국의 지역 영화관 지원 정책

영국은 BFI(British Film Institute)가 중심이 되어 강한 영상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로, 지역 영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다. 특히 영국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경험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장기간 펼쳐왔다.

오늘날에는 블루레이와 DVD, 최근에는 IPTV를 비롯한 VOD 서비스 등의 기술 발달과 매체의 다변화로 인해 영화 감상 경험이 개인화되고 있다. 영화의 소비가 어디서든 가능해진 오늘날, 극장이라는 공간에서의 영화 관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영화 관람이 단순히 콘텐츠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극장 관람이라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와 발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역의 영상문화에 초점을 맞출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작은영화관 계획은 지역 주민들이 최신 영화를 대도시 관객들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본다고 하는 측면, 즉 소도시의 문화 소외 해소 및 문화 향수 증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빅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배태되는 유대의 가능성이

2) 2005년 자료는 7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했거나 멀티플렉스 체인에 속해 있는 모든 극장으로 멀티플렉스를 정의하고 있고, 2011년 및 2017년 자료는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체인 극장 및 7개관 이상 극장을 멀티플렉스로 정의했다.

3) 디지털 시네마로의 전환이 지역 극장이나 소규모 극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논의는 호주 사례를 다룬 논문 Aveyard, K. (2009)나 일본 사례를 정리한 映画映畫總合研究所 (2011)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 지역극장의 쇠퇴에는 디지털 시네마라는 글로벌적, 보편적 요인 이외에 국내의 특수한 요인도 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하게 된 것, 2001년부터 이동통신 3사가 멀티플렉스 체인과 제휴하여 관람료 할인을 하게 된 것 등도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측면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영국 BFI는 ‘필름 포에버’라는 영국 영화 육성 계획을 2012년 세우고, 5년간 8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빅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는 집합적 체험에서 텔레비전이나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개인화된 영화 감상 체험까지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오늘 날, 블록버스터, 최신 인디 영화, 고전 영화 등을 어떤 플랫폼에서든 선택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상영 환경의 스펙트럼을 다양화”⁴⁾ 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필름 포에버’는 극장 뿐 아니라 개인화된 매체를 통한 영화 감상까지를 포괄하고 있지만, 빅스크린을 통한 집합적 영화 관람은 개인화된 매체가 발달할수록 역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BFI 역시 상영관에서의 집합적 감상을 중요히 여기고 있다. 블록버스터뿐만 아니라 인디, 고전 영화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빅 스크린을 통한 집합적 영화 관람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필름 포에버의 계획안에 ‘동네 극장(neighbourhood cinema)’ 지원이 들어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1. 농촌 영화관 시범 계획

2010년 시작된 ‘농촌 영화관 시범 계획 (Rural Cinema Pilot Schemes)’은 영국 영화위원회(UKFC, 2011년 BFI로 통폐합)가 시작한 계획으로, 농촌 지역에서도 극장에서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3년 간 복권 기금 1.2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실시된 계획이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⁵⁾.

UKFC는 영국의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와 파트너십을 맺고, 우선 영국 전역의 농촌 지역 극장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의 인구 밀도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을 함께 조사하여 농촌 영화 프로젝트의 시범 지역으로 슈롭셔(Shropshire), 윌트셔(Wiltshire), 북 요크셔(North Yorkshire)를 선정하였다. 환경식품농무부의 조사에 기초하여 UKFC는 필름 상영 공급과 공공 편당의 지형,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측면, 전략적 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독립예술 미디어 컨설팅사의 심층 조사를 활용했다. 이 조사는 정책적 검토와 함께 각 지역의 핵심적인 주체들에 대한 인터뷰 등의 필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농촌 영화 시범 계획의 목적은 농촌의 상영관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농촌 상영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영화의 공공적 스크리닝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마을의 홀이나 아트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 극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화 상영도 포함하였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필름 소사이터, 영화 클럽, 이동 영사, 커뮤니티 시네마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이 계획은 농촌 지역의 관객들이 되도록 뛰어난 사운드와 화면을 통해 새로운 영화들을 볼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는데, UKFC는 조사 결과 농촌 지역의 상영자들이 대부분 DVD 기반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구나 설사 DVD 하드웨어 장비가 좋아서 수준 높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도시의 극장 상영이 시작되고 12~16주가 지나야 상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UKFC는 이 농촌 영화관 시범 계획이 장비 지원과 원칙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UKFC는 디지털 시네마 이니셔티브(DCI)⁶⁾의 채택을 핵심으로 보고, DCI 프로젝터를 지원하는 한편, 블루레이 베이스의 디지털 영사 장비를 함께 제공하였다. DCI 장비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극장의 상영에 있어서 블루레이 상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한 블루레이 베이스의 디지털 영사 장비는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장비의 결합은 농촌의 상영자들에게 유연성을 주고, 콘텐츠의 공급에 있어 다른 방식들을 시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각 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단일 조직에 조성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원받은 조직은 위에서 언급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구입한 장비들을 되도록 많은 지역에서 사용해야 했다⁷⁾.

BFI는 2013년에 ‘농촌 영화관 시범 계획’의 실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 시범 계획은 201개의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 3,920번의 상영을 지원하여, 20만 9,563명의 관객을 모았다. 이 중 블루레이 상영이 47회, DCI 상영이 58회 있었으며, 총 698편의 영화가 프로그램 되었다. 그 중 44%는 다양성영화(specialized films)⁸⁾였다.

<표 2>의 평가보고서는 지역에서의 영화 상영과 지원에 있어서 본 사업이 몇 가지 전략적, 기술적 교훈을 남겼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기술적인 면에서 이 시범 계획은 농촌 관객들에게 극장 관람이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함을 입증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농촌 지역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나 회합 장소(예를 들어 지역의 가게, 펍, 커뮤니티 그룹 등)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셋째, 이 시범 계획은 새 관객을 발굴하고 상영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는 특별한 이벤트(예를 들어, 행사, 제작자 Q&A, 영화제 스크리닝 등)가 도움이 됨을 입증했다. 그 외에 3D 상영에 대해서는 수요가 한정적이며, 영국 아트 카운슬로부터 지원을 받는 몇몇 혼합형 공간에서 상영을 할 때 그들의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 지자체는 DCI의 설치 투자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그 외 전략적으로 BFI와 같은 중앙 정부 기관이 코디네이터로서 개입하

4) BFI plan 2012-2017 <http://www.bfi.org.uk>

5) UK Film Council rural cinema strategy. <http://www.bfi.org.uk>

6) 미국의 메이저 배급사들이 주축이 되어 2005년 런칭한 새로운 디지털 시네마 포맷으로 그 전의 e-cinema 등을 대체하면서 세계적인 표준이 되었다.

7) Bring cinema to rural communities: the UK Film Council's Rural Cinema Pilot Scheme. <http://www.bfi.org.uk>

8) 국내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다양성 영화로 번역하였지만, 원래 스페셜라이즈드 필름은 영국 영화 위원회가 디지털 스크린의 전환에 있어 DSN(Digital Screen Network) 프로젝트를 문화다양성 확대와 연동시키기 위해 영화관에 무상으로 디지털 스크린 프로젝터를 설치해주는 대신 스페셜라이즈드 필름 상영을 의무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안된 용어이다. ‘독립 제작 영역에서 만들어진 영화, 할리우드의 제작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제작비로 만들어진 영화, 특수 효과나 이벤트 보다는 캐릭터나 각본에 초점을 맞춘 영화, 주류 영화 관객층 보다는 특정 관객층에 어필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화’가 이 영역에 속하는 영화라 할 수 있다(鄭仁善 2017). 미국에서도 인디펜던트 필름, 다큐멘터리 필름,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 등 메인스트림에서 떨어져있는 비주류 영화를 지칭하는 산업 용어로 스페셜티(specialty)라는 표현이 있다(King 2009).

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극장과 배급사와 조정이 용이했다는 점, 또 일회적 상영에 대한 상영료에 대해서도 정부 단위의 개입에 의해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 관객 개발 및 데이터 수집 등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요하게 평가하였다.

<표 2> 영국의 농촌 지역 영화 상영 지원 시범 계획 3개년 평가

상영 편수					
컨소시엄 조직	2010	2011	2012	2013	단일 영화 타이틀수
Cine Yorkshire	31	181	174	64	362
Shropshire Screen	47	183	228	94	436
White Horse Pictures	20	77	124	55	254
단일 영화 타이틀수	82	323	374	147	688
다양성 영화 상영 비율					
컨소시엄 조직	2010	2011	2012	2013	2010~2013 평균
Cine Yorkshire	54%	37%	31%	30%	35%
Shropshire Screen	45%	50%	52%	44%	49%
White Horse Pictures	36%	46%	36%	63%	44%
평균	46%	45%	43%	43%	44%
다양성 영화 관객 비율					
컨소시엄 조직	2010	2011	2012	2013	2010~2013 평균
Cine Yorkshire	50%	39%	26%	35%	33%
Shropshire Screen	43%	49%	45%	37%	44%
White Horse Pictures	37%	67%	35%	60%	55%
평균	42%	52%	40%	39%	43%

BFI 홈페이지, <http://www.bfi.org.uk>

2. 동네 극장 펀드

2013년부터 시행된 ‘동네 극장 (Neighbourhood Cinema)’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 상영 지원과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농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커뮤니티 시네마의 상영 활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특별한 차이점은 없지만, ‘동네 극장 (Neighbourhood Cinema)’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바로 내 주변에 언제든 공동체 상영이 있고 관객은 그것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그런 점에서 BFI는 커뮤니티 시네마가 유지되도록, 혹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네 극장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센터나 마을 회관, 어쩌면 동네 펍에서 규칙적으로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동네 극장 지원 사업에는 이동 영사나 장비 지원 등의 사업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에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간을 구하고 펀드를 조달하며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BFI가 지난 5개년 계획에서 관객들이 영국 전역에서 극장이든 온라인 플랫폼이든, 모든 형태의 영화 관람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지점이다. 또 한편으로 이동 영사와 장비 지원에 펀드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농촌 지역 세 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상영 활동을 지원했던 지난 사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커뮤니티 시네마가 그러하듯 여기에서 말하는 시네마는 물리적인 공간인 극장을 의미한다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영화의 상영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 혹은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이 펀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백만 파운드의 복권 기금을 배정받게 되었으며, 이 펀드가 저렴한 관람료, 상영의 질적 향상, 콘텐츠의 적절한 공급을 통해 커뮤니티 시네마가 다양한 영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았다.

이 펀드의 주요한 목적은 첫째, 지역 커뮤니티 레벨에서의 영화 관객 신장, 둘째, 장비의 투자, 온라인 플랫폼, 프로그램 조인, 정보 및 네트워크의 제공을 통해 상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상영 장소를 만들어 내고 개발함, 셋째, 영국 영화 및 다양성 영화에 대한 관객의 선택과 접근을 신장하는데 있다.

이 펀드는 이동 영사 펀드, 장비 펀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동 영사는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시네마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 그리고 신규의 이동 영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커뮤니티 시네마가 있지만 상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상영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다양성 영화의 상영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한 지원 제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국의 농촌영화관 지원 정책은 우리의 작은 영화관 정책과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르다. 농촌의 상영관을 강화시켜 나가고, 농촌 지역의 관객들이 되도록 뛰어난 사운드와 화면을 통해 새로운 영화들을 볼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우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들을 살펴보면 농촌에서의 영화 상영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상이해 보인다.

먼저 우리가 영화관이라는 공간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영국은 농촌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활동을 펼치는 단체에게 DCI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원을 받은 컨소시엄 단체는 극장 뿐 아니라 마을의 홀, 아트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하면서 상영 활동을 펼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기반 단체들과 결합하게 된다.

우리의 작은영화관 지원 제도는 멀티플렉스에 뒤지지 않는 시설에서 동시기 개봉 영화를 본다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기에 상업영화의 상영이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농촌영화관 지원 정책은 상영 프로그램의 절반을 다양성 영화로 채우고 있어 공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III.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작은영화관의 역할 및 발전방향

1. 작은영화관의 역할

작은영화관은 극장 부재 지역에 영화문화의 향유권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하는 상설 영화관이며,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건립 예정인 곳을 포함하여, 약 59개의 작은영화관이 존재하는데, 현재 지역 영상문화 기반 시설 중 가장 활발히 건립되고 있다(정지은 외 2018). 작은영화관이 활발히 조성되는 이유는 대도시 지역 중심의 영화문화 향유 기회를 작은 마을까지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단체의 영상문화 진흥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 영화상영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작은영화관에서도 대도시와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의 영상문화 향유를 제고하는 공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작은영화관이 건립되는 지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영화종합계획(2016~2018)의 내용을 살펴보면,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라는 비전 아래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계획에서는 영화창작과 향유문화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을 강조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작은영화관-공공다양성영화전용관-찾아가는 영화관-영상문화나눔버스 등 촘촘한 향유 인프라를 확산시키고, 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작은영화관이 점차 영화창작 및 향유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문화공간 거점으로 성장해야함을 시사한다.

2.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작은영화관의 발전방향

본 연구에서는 작은영화관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커뮤니티 시네마로서의 장소성’, ‘상영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

1) 커뮤니티 시네마로서의 장소성

2013년 본격적으로 추진된 작은영화관 사업은 기존 상업 영화관과 차별화된 공공상영관의 역할이 강조되기에, 그 건립과 운영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작은영화관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간 영상문화향유의 격차 해소와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채지영 등 2016).

작은영화관이 영상문화 향유 기본권 확대에 기여하는 역할로, 마을 인근에서 영화를 보기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최신 개봉영화를 지역 내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작은영화관의 한국영화 상영비율은 40% 전후로, 30% 미만인 전체 영화관의 한국 상영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모든 작은영화관에서 한국영화상영일을 준수하였다. 이처럼 작은영화관은 어떤 영화관보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공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3> 한국영화 상영내역 비교

연도	전체영화관		작은영화관		
	한국영화 상영편수	한국영화 상영비율	총 상영편수	한국영화 상영편수	한국영화 상영비율
2014	312	29%	1,086	66	40%
2015	321	28%	1,159	76	41%
2016 상반기	193	26%	747	48	43%

채지영 외 (2016), “작은영화관 사업효과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22.

대체로 작은영화관의 상영 작품을 살펴보면, 서울과 동시 개봉되는 한국 최신 영화 상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공공상영관으로서 작은영화관이 지향해야 할 것은 주민에게 영화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중심 되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경험을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을 펼쳐왔다. 또한 영국은 극장이라는 공간에 영화 관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동네 극장(Neighbourhood Cinema)’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 상영지원과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이 융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네 극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내 주변에 언제든 공동체 상영이 있고, 관객은 그것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BFI는 커뮤니티 시네마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들은 돕는 사업으로 동네 극장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동 영사나 장비 지원 등의 사업도 운영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에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간을 대여하고, 펀드를 조달하며 마케팅 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이제는 작은영화관이 한국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역할 외에도, 공익적·문화적 공간으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1차적 영화관 건립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작은영화관이 공적 상영을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은영화관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갖는 공간의 중요성과 의미를 담은 커뮤니티 시네마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영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 영상문화 생태계 조성이 구축되기 위해서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활동가 및 주민이 영상 창작 활동을 하고, 지역 내 생산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할 지역 관객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영화종합계획(2016~2018)에서 발표된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목표에서는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화로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작은영화관이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관객에게 다양한 창작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유통 및 배급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은 집단 혹은 공동체 사이에서 좋은 관계 및 기회 균등과 차이에 따른 차별 없는 포용적 사회를 의미하며, 집단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개념이다. 문화다양성은 선택과 접근의 다양성, 보편적인 인권과 평등, 균형 잡힌 교류,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가치를 가진다(이동성, 주재홍, 김영천 2013). 따라서 작은영화관에서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것 외에도 지역에서 창작된 영화들이 지역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선택과 접근의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라북도 주민시네마스쿨과 작은영화관의 연계 활동은 시사점을 가진다. 주민시네마스쿨은 ‘작은영화관에서 개봉영화 외에도 지역민들이 직접 만든 영화가 상영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에서 시작된 것으로, 내 이웃이 만든 영화가 지역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영준 2015). 여기에는 작은영화관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장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내 영상문화 향유가 이뤄지는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민시네마스쿨의 연장선상에서 임실군, 진안군 등은 지역영화제인 마을영화제 개

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작들로 구성된 마을영화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이 만든 지역이야기와 영화가 작은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주민들이 함께 보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들을 주민 스스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주민시네마스쿨은 한국영화종합계획(2016~2018)에서 주장하는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화로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창작 활동과 배급 과정의 선순환체계가 구축된 사례이다.

‘메이드 인 지역’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작은영화관 상영 콘텐츠에 어느 정도 다양성 영화를 포함시키는 것은 작은영화관이 공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상영관’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 중요해 보인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BFI가 실시한 3년간의 농촌 영화관 지원 정책은 다양성 영화의 상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동네 극장 펀드 프로젝트는 지역 커뮤니티 레벨에서의 영화 관객 신장, 상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상영 장소 조성, 영국 영화 및 다양성 영화에 대한 관객의 선택과 접근 신장이라는 명확한 세 가지 목표를 세웠고, 이에 따라 세부 계획을 추진했다. 작은영화관은 현재 지역 간 영화 향유권 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대도시 멀티플렉스와 동일한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직은 노인 인구가 주축을 이루는 농어촌 중심의 소도시에 전혀 수요가 없는 예술, 독립 영화 상영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가 들 수 있겠으나, 관객 수나 매출 등 상업 영화 시설의 영업 논리를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역 내에 이러한 다양한 영화 문화의 관객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상영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야 한다.

3)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최근 강원도 내 작은영화관 조성을 준비 중인 몇 개의 지자체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를 읽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향후 개관할 작은영화관의 주요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허경 2015). 이처럼 작은영화관에서는 주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영상문화의 주요한 주체로 시민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특히 영상제작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은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되어, 지역 영상 제작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작은영화제를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영상문화 생산자로 성장하고 있다(홍교훈 등 2016). 앞서 언급한 전라북도 주민시네마스쿨은 ‘보는 영화’에서 ‘참여하는 영화’로 영상문화의 영역이 확대된 사례로, 2013년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전주영상위원회, 전북 독립영화협회, 전주시민미디어센터가 함께 논의하여 만든 영상제작교육, 단편영화제 등의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이와 같이 작은영화관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이들이 만든 작품이 작은영화관에서 향후 상영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향후 문화예술

소비 여부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정지은 2016)가 나타났으며, 향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문화예술소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Leder et al 2004)도 분석되었다.

2006년 BFI는 ‘At a Cinema Near You’라는 가이드북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역 시네마 설립에 참여하려는 개인 혹은 지자체 등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의 영화관이 단지 영화만을 상영하는 공간에서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해 여러 가지 유용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나 대학, 평생 교육 기관에서 문화·교육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거나 지역 내 사업체가 주요한 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을 빌려주는 운영 과정을 담고 있다(정인선, 박혜영, 송수연, 강민구 2008). 향후 작은영화관을 문화·교육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거나, 작은영화관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이 문화 거점 공간으로 꾸준히 방문할 수 있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 작은영화관 건립을 준비하는 지자체 공무원, 작은영화관 운영 담당 지자체 공무원, 작은영화관 운영자, 영사기사, 작은영화관 직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작은영화관 건립 및 운영, 기술 등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교육을 담당할 기관 역시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정이 필요하다(채지영 등 2016). 향후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작은영화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들 간에 협력과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은영화관이 영화를 단순히 공급하는 공간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1.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세계의 도시들은 문화콘텐츠, 영상 산업 등 성장을 위한 차세대 동력인 문화산업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영화 분야는 지역 주민과 가장 맞닿아 있어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영화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영화관은 지역 주민의 대표적 여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소규모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인근에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이 없어, 문화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작은영화관 사업을 시작하였고, 최근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중 가장 활발히 건립되면서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건립 예정인 곳을 포함하여 약 59개의 작은영화관이 만들어졌다(이충기, 채지영, 안소현 2018; 정지은 등 2018).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작은영화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영화관의 의미를 정립하고,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경험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정책을 펼쳐온 영국의 농촌영화관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작은영화관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지역 영화관은 1990년대 이후 영화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존립에 있어 위협을 받아 왔으며, 도 단위의 지역에서는 2005년 이후 지역 극장 폐관이 가속화되어 소도시 중심으로 영화관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이 대도시와 소도시간의 극심한 문화향유 양극화를 낳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은영화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지역 소도시에서의 영화관 공동화 현상은 비단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영국에서도 농촌 지역의 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목적 하에 농촌 영화관 지원 사업이 3년간 한시적으로 있었다. 이 사업은 단지 농촌 인구가 상업 영화를 멀티플렉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소비한다는 목표를 넘어서 지역에서의 영화 상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영 주체와 상영 공간을 발굴했다는 국내와의 차이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둘째, 영화의 소비가 어디서든 가능해진 오늘날, 작은영화관의 공간에서 단순히 영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형태로 가야한다. 작은영화관을 통해 지역 주민이 최신 한국 영화를 대도시 관객과 동일한 시기에 볼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마을의 사람들이 큰 스크린을 통해 영화 보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커뮤니티의 유대 관계 측면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1차적 영화관 건립에 대한 지원에서 나아가 작은영화관이 공적 상영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은영화관이 영화창작 및 향유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문화공간 거점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농촌영화관 사례도 소규모 영화관들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지역 영상문화 생태계 조성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활동가 및 주민들의 영상 창작 여건을 마련하고, 작은영화관이 지역 내 창작된 영상 콘텐츠를 유통 및 배급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영화와 더불어 독립·예술영화의 상영작품까지 확대되는 문화다양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은영화관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 내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는 영화'에서 나아가 '참여하는 영화'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을 문화·교육적 용도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거나, 작은영화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나아가 작은영화관 건립을 준비하는 공무원, 담당자, 직원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작은영화관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작은영화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상품 분야 등의 학술 연구와 현장에서 모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지는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영화관의 주요 대상인 방문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은영화관의 발전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작은영화관의 방문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작은영화관을 운영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의 농촌영화관 사례 외에도 작은영화관 운영에 선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의 영화정책과 사례들을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작은영화관을 운영함에 있어 지침을 주는 많은 연구들의 축진제가 되기를 바란다.

- 논문접수일: 2018. 11. 19.

- 수정접수일: 2018. 11. 28.

- 게재확정일: 2018. 12. 09.

참고문헌

- 강은기 (2016), "극장시설을 통해서 본 원도심 상징공간 재생과 장소성의 의미," 씨네포럼, 24, 299-321.
- 고영준 (2015), "전라북도 주민시네마스쿨, 작은영화관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미디어센터 매거진 미디어스코프, 15(7-8), 7-10.
- 김선태 (2015),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네트워크, 68, 208-219.
- 영화진흥위원회 (1989), 한국영화연감.
- _____ (2005), 2005년 극장 및 스크린 현황 분석.
- _____ (2011), 전국극장현황.
- _____ (2016),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
- _____ (2017), 전국극장현황.
- 윤소민, 정지은 (2017), "문화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국제영화제의 운영 방안 관련 연구: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5(3), 73-81.
- 윤혜숙, 함주리 (2012), "영화문화 향유권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이동성, 주재홍, 김영천 (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 및 이론적 배경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3(6), 51-72.
- 이충기, 채지영, 안소현 (2018),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관광연구학회, 32(6), 167-178.
- 이충직 등 (2001), "한국 영화 상영관의 변천과 발전 방안," 영화진흥위원회.
- 정인선, 박혜영, 송수연, 강민구 (2008), "다양성 영화의 지역 상영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정지은 (2016),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과잉 음이향 모형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4(2), 67-75.
- 정지은 등 (2018), "지역 영상문화 진흥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채지영 등 (2016), "작은영화관 사업효과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함주리, 김경표, 정민화 (2016), "작은영화관 조성 및 운영 매뉴얼(2016년 개정판)," 영화진흥위원회
- _____, 원환섭 (2015), "작은영화관 소개 및 현황," 미디어센터 매거진 미디어스코프, 15(7-8), 3.
- 허경 (2015), "작은영화관 활성화 위한 과제 및 발전방안," 미디어센터매거진 미디어스코프, 15(7-8), 11-13.
- 홍교훈 등 (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Aveyard, K. (2009), "Coming to a Cinema Near You?: Digitized Exhibition and Independent Cinemas in Australia", *Studies in Australasian Cinema*, 3(2), 191-203.
- BFI plan 2012-2017. <http://www.bfi.org.uk>
- Bring Cinema to Rural Communities: The UK Film Council's Rural Cinema Pilot Scheme. <http://www.bfi.org.uk>
- King, G. (2009), *Indiewood, USA: Where Hollywood meets Independent Cinema*. I. B. Tauris.
- Leder, H., B. Belke, A. Oeberst, and D. Augustin (2004),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tic Judgem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5, 489-508.
- UK Film Council Rural Cinema Strategy. <http://www.bfi.org.uk>
- 鄭仁善 (2017), "日韓インディペンデント映畫の形成と發展: 映畫産業に對する政府の介入," *セリカ書房*.
- キネマ旬報映畫總合研究所 (2011), "Special Issue 續・映畫館のデジタル化," *キネマ旬報*.